

일본 수출로 국내 기자재 우수성 입증

- 국내 양계산업 자동화에 큰 기여 -



▲ 20년간 양계 기자재와 인연을 맺어온 김순중 사장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양계업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양계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에 자리한 미성종합축산기계(대표 김순중, 46)는 20년간 양계인들과 함께하면서 축산 기자재 공급은 물론 집란기 및 할란기를 일본에 수출하는 등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중국으로부터 저렴하면서도 튼튼한 중국산 양계시설(케이지 등 일체)을 국내에 선보이면서 양계인들로부터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1992년 한국축산기자재협회를 설립할 당시 초창기 멤버로 참여하면서 업계발전에 힘을 쏟았고, 1991년부터 시작된 한국양계박람회에 집란시스템을 출품하면서 축산자동화시설을 보급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양계 자동화에 기여

김사장은 과거 자동차 생산공장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 기계설계 및 엔지니어로 보고 만드는 재주가 남다르다. 김사장의 손을 거치면 양계에 관한 모든 기자재가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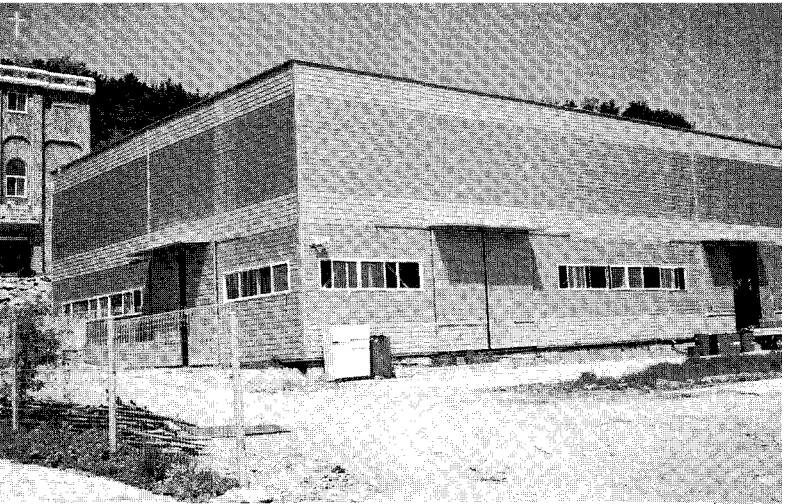
1980년 중반 5년여동안 양계기자재를 공급하는 흥연축산기계에서 기술과 A/S를 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양계업계에 입문하였고, 1990년에는 현 서울 방화전철역 위치에 미성종합축산기계를 세우고 집란시스템을 주력품목으로 직접 생산, 공급에 들어갔으나 도시화에 밀려 이듬해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에 공장을 마련하여 농가보급에 들어갔다.

당시 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호퍼식 급이기와 스크레퍼 등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외국으로부터 직립식 케이지가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채란계로부터 알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농장에 직접 들어가 집란을 해야만 하였고, 그 일거리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김사장은 양계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집란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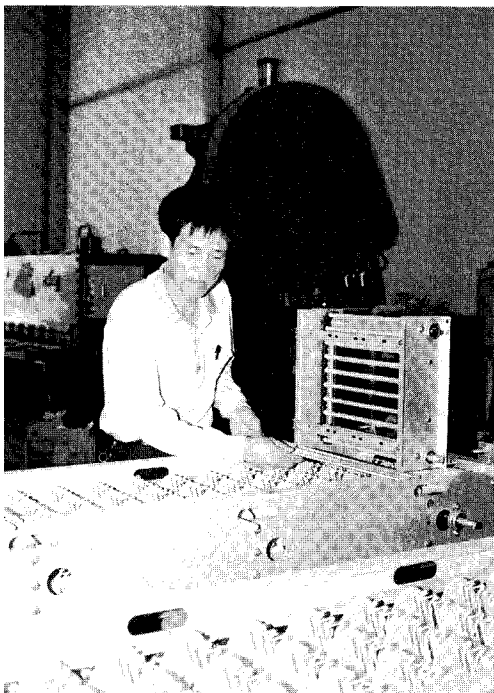
김사장은 자동화의 흐름에 맞추어 테이블 방식, 에스컬레이터방식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1994년부터는 일본의 양계, 양우, 양돈 토탈시스템업체인 (주)오미야(株)大宮製作所와 기술제휴를 하면서 최신식 바콘베이어와 집란기를 선보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였고,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미성종합축산기계를 통해 집란시스템이 설치된 농장만 해도 전체 산란계 농가중 30%가 넘는 정도로 자동화 보급에 앞장서 왔다.

국내 기자재 일본 수출길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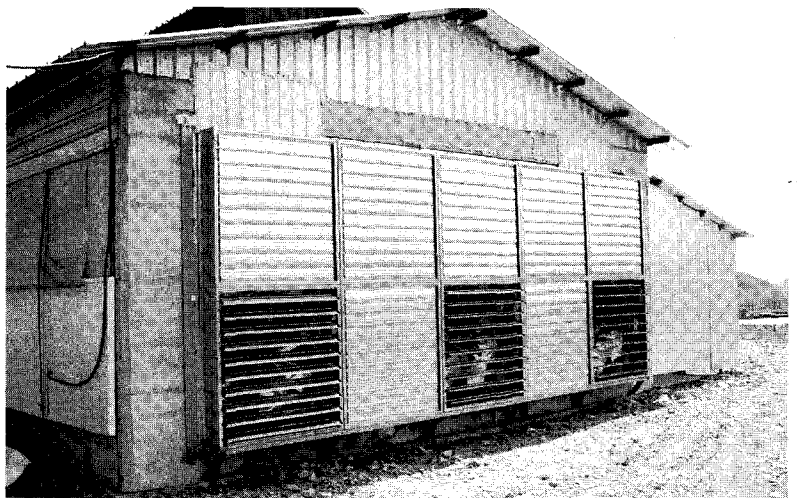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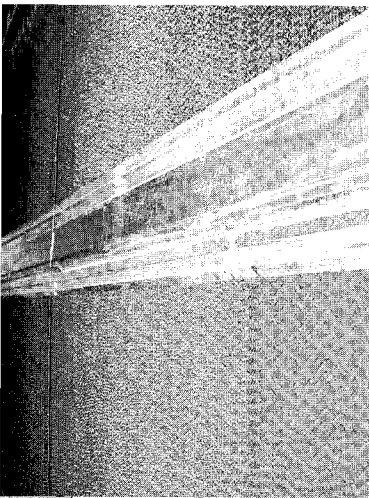
이후 김사장은 변화되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1999년 일본 난가공전문업체인 삼공기연(有)三共技研으로부터 할란기를 도입하여 내수 및 OEM방식으로 일본 수출길을 열어



▲ 원주시 우산동에 위치한 미성종합축산기계 공장 전경



◀ 내수 및 일본수출로 최근 김사장의 손놀림이 바빠진만 하다.



▲ 중국에서 수입된 병아리 육성사(전면에 쿨링패드와 후방에 흰이 설치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오란세척기 및 할란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EGG CUTTER기를 현재까지 납품중이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003년에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농장에 보일공업(주)와 합작으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직립8단5열 집란시스템을 세이메이(セイメイ) 농장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기술제휴한 (주)오오미야(株)大宮製作所)에 40대(A형4단 연란제기형) 집란기를 수출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한해를 바쁘게 보냈다. 또한 금년에는 종합축산기자재회사인 (주)세끼네(セキネ)의 직립6단3열 2동분 집란시스템을 주문받아 시공하여 현재 산란중에 있다.

김사장이 일본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의 많은 도움을 받아 끊임없는 노력과 투지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시 100% 변제를 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다.

새로 준공한 200여평의 공장에서는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품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다. 이곳에는 국내 양계 기자재에 필요한 부품들이 항시 비치되어 있으며, 김사장의 손에 의해 집란시스템, 난가공시스템 등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 케이지 국내 상륙

김사장은 해마다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좌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시장조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양계의 메카라 할 수 있는 광주(廣州)지역에 위치한 광주광흥목업설비유한공사(廣州廣興牧業設備有限公司)를 둘러보면서 국내 어느 공장보다 큰 규모에서 케이지가 생산되어지는 것을 보고, 국내보다 싸고 튼튼하다면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굳이 비싸게 케이지를 들여오지 않아도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결국 금년 3월 중국으로부터 4단3열의 초생추케이지 및 부대시설이 경북 영주시 덕풍농장(대표 오무일)에 설치되었으며, 지난 5월 4일 병아리가 입추되었다.

경북영주시 단산면 옥대리에서 8만수의 산란계를 경영하는 오무일 사장은 노화된 초생추농장에

서 과거 70~80일을 기른 후 산란계사로 옮기다 보니 시산 전 관리가 번거롭고 불편하여, 아예 120~130일까지 육성할 수 있는 계사에서 닭을 기르기 위해 시설을 바꾸기로 결심을 하였다. 마침 지난해 9월 미성종합축산기계 김사장의 추천으로 직접 중국 광주공장을 방문, 중국케이지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원하는 사양을 주문하고 돌아왔다.

롤러식 작업대 설치로 고층작업 수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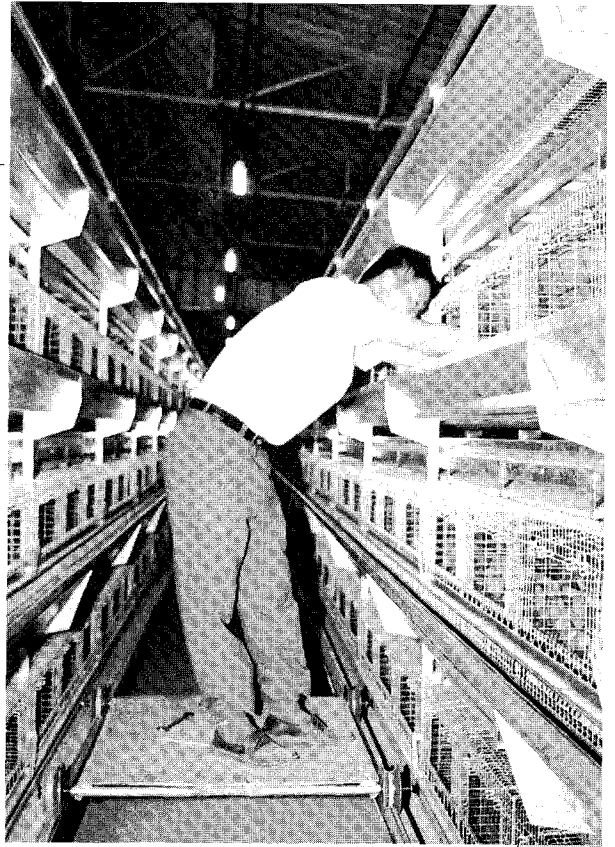
오사장에 따르면 현재 시공된 초생추농장은 우선적으로 설치비가 수당 6,000원대가 들어 보통 외국산보다는 30%, 국내산보다는 15~20%정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 중국제품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이며, 선진 양계국들의 케이지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고층에서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롤러식 작업대가 설계되어 있음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덕풍농장의 특징은 타 농장과 달리 케이지 바닥에 보일러 시설을 하여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도 안고 있다. 또한 전면에 쿨링패드를 설치하고 후방에 자동웬으로 환기를 시키는 터널식으로 온·습도의 자동조절에 따라 쾌적한 계사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처음 설치되다 보니 케이지의 일부와 낚플 설치시 보완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문제점을 발견, 보완하는 조치로 해결할 수 있었다.

덕풍농장은 방역을 생명으로 알고 있다. 농장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차량은 소독기에서 완벽하게 소독이 된 상태에서 출입할 수 있으며, 사료차도 직접 구입을 하여 외부차량을 최소화시킨다. 그리고 기본적인 백신접종 외에는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병아리를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키워 생산성을 높이는데 오사장은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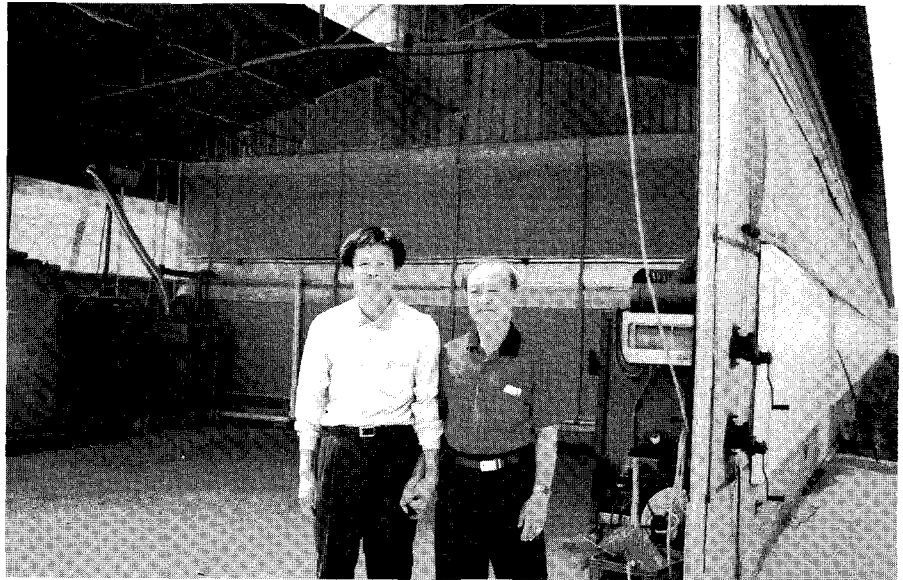
예로, 중추의 경우 한방제인 십전대보탕 허브믹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성계는 생균제의 일종인 그린엠[®]을 사용하는 등 타 농가들과 차별화를 기하면서 그 동안 가금티푸스 등 질병으로부터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로 사양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김사장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국내 정서상 반감을 살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외국으로부터 모든 산물이 개방되고 있으며, 특히 양계기자재는 이미 '90년대부터 유럽, 미국 등 선진 양계



▲ 병아리가 입추된 내부에서 롤러를 타고 손쉽게 작업에 임할 수 있다.

국으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져 왔고, 중국에서도 이미 국내 B사가 현지공장을 가동하면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 중추계사 앞에서 덕풍농장 오무일 사장(우)과 김순중 사장(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할란기와 집란시스템을 일본에 수출하는 만큼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소비자가 싸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원할 경우 공급하기 위해 가교역할을 해 나갈 뜻을 밝혔다.

철저한 A/S로 승부

미성종합축산의 강점은 철저한 A/S에 있다. 10년이상 함께 일하던 베테랑급 직원들이 전국 3개 지역의 지사장으로 일하면서 본사와 유기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경기, 충남, 전남북지역은 김석중 지사장이, 경북, 경남, 충북지역은 임수현 지사장이, 강원도와 본사를 지원하고 해외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김현중 지사장이 포진해 있어 농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출동하여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이번에 수입된 중국 케이지 시스템도 대부분 자체 기술로 제작이 가능한 만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초창기 양계기자재 업계에 접없이 뛰어들었지만 이 분야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것 같습니다. 기계만 생산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닭의 생리를 알고 사양관리까지 감안을 하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큰 불편없이 미성제품을 사용해준 사양가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완벽한 양계기자재를 공급할 것이며, 변화되는 기류에 맞춰 양계인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 정진할 것입니다.”라며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뜻을 밝혔다. **양계** 취재 | 김동진 차장 (dj@poultry.or.kr)